

‘RE100 산단 최적지’ 해남군, 정부 계획 전폭 환영

‘에너지 신도시’ 도약...새정부 기조 반영 재생에너지 인프라·입지 조건 모두 갖춰

해남군이 정부의 서남권 RE100 산업단지 조성 계획에 대해 전폭적인 환영 의사를 밝혔다. 13일 해남군에 따르면 이번 정부 발표는 ‘에너지 대전환’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국정과제를 해남이 선도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했다. 대통령실이 지난 10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RE100 산단 추진을 위한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대응이다. 해남군은 모든 입지 조건을 갖춘 최적지로서 이를 강력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RE100 산단은 재생에너지를 100% 활용해 기업들의 RE100 수요를 충족시키는 산업단지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국정철학인 ‘에너지 대전환’과 ‘지역균형발전’에 부합하는 사업으로,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에 첨단 기업을 유치하고 ‘지산지소’(지역에서 생산하고 지역



에서 소비) 개념을 실현함으로써, 에너지 수급 불균형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함께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해남군은 이 같은 사업 취지에 공감하며 예

지 수급 구조와 산업지도를 혁신적으로 재설계해 ‘에너지 신도시’로 확장하고 지역경제의 핵심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또한 RE100 산단의 최적지는 해남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최종 선정에 대한 자신감도 드러냈다. 앞서 해남군은 RE100 유치 활동을 선도적으로 펼쳐왔다. 지난해 4월 명원관 해남군수가 기초지자체 최초로 한국재생에너지매칭포럼을 찾

아 솔라시도 RE100 추진 현황과 투자 유치 사례를 발표한 바 있다. 현재 해남군 솔라시도 기업도시(조감도)에는 98MW 규모의 태양광 발전단지가 가동 중이며, 2030년까지 5.6GW 규모로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 단지와 연계돼 전국 최대 규모의 재생에너지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다. 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에 이어 올해 분산 에너지특화지역(분산특구) 후보지로도 선정된 해남군은 기업 유치와 정주 여건 개선, 인력 양성에 필요한 기반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여기에 새 정부 공약으로 반영된 AI슈퍼클러스터 데이터센터 조성과 RE100 산단이 결합하면, 해남은 ‘에너지 신도시’로서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명원관 군수는 “해남은 전국 최고 수준의 재생에너지 잠재력을 갖춘 지역으로, 정부가 구상한 RE100 산단에 즉시 착수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다”며 “정부의 RE100산단 조성 계획을 온 군민과 함께 환영하며 박지원 국회의원과 전남도, 관계 기관과 협력해 반드시 유치해내겠다”고 강조했다. /해남=박필용 기자

목포시, 정기 인사 ‘장애인 차별·전문직 홀대’ 잡음

승진서 배제...특정인 염두 의문 제기 권한대행 “조직 소통·화합 직원 중점”

목포시가 단행한 2025년 하반기 정기인사를 두고 장애인 차별, 전문직 홀대론 등 잡음이 일고 있다. 13일 목포시에 14일자로 단행한 이번 정기인사 규모는 승진 72명, 승진의결 4명, 전보 302명, 신규임용 21명 등 총 399명 규모로 이뤄졌다. 직급별 승진 인원은 ▲4급 3명 ▲5급 5명 ▲5급 승진의결 4명 ▲6급 9명 ▲7급 24명 ▲8급 31명으로 총 76명이다. 목포시는 이번 전보인사에 대해 조직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적 쇄신을 도모했고, 현안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직원을 발탁해 적재적소에 배치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목포시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4급 승진, 5급 승진의결, 5급 전보 등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4급의 경우 이번 인사에서 3명이 승진했는데 승진후보자명부 서열 1번과 2번이 승진, 3번이 장애인 공무원으로 승진에서 제외되고 후순위가 승진해 장애인 차별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인사혁신처 장애인 공무원 인사관리 매뉴얼’에 ‘장애인 공무원이 승진후보자명부 서열상 승진예정 인원 범위 내에 포함돼 있는 경우에는 가능한 장애인 공무원이 승진 임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를 이유로 승진에서 누락시키지 않도록 함’이라고 권고하고 있다. 해당 공무원은 “지금까지 8번이나 승진서열에 들었으나 장애인 차별을 받았다”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중 하나가 차별없는 사회”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4급 승진은 행정직만 3명, 국장급 10자리 중 전문직보다는 행정직이 대다수여서 전문직 홀대론도 대두되고 있다. 많은물사업단의 단장과 과장 복수직렬에 전

문직인 시설(토목) 보직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인사에서 단장과 수도과장에 행정이 발령되고, 하수과장은 공업(기계) 직렬이 유임됐다. 이에 대해 복수의 공무원들은 “전문직은 필요한 자격을 소지하고 채용된 공무원이어서 사회복지 3과, 공원녹지, 수도과, 하수와 등에는 이에 걸맞는 전문직이 필요하다”면서 “4급 승진에서 행정만 승진, 시설직 등은 인사예고부터 제외하고 후보자명부 순서가 지켜지지 않은 것은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이뤄졌다는 합리적인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조석훈 목포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인사는 조직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하되, 어려운 시기임을 감안해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조직을 꾸리는 데 방점을 뒀다”며 “정치적 계파나 학연·지연·혈연, 청탁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과 성과, 조직 상하 간 소통과 화합하는 직원을 중점적으로 배려했다”고 밝혔다. /목포=정해선 기자



함평 ‘서남권 중추도시 도약’ 본격화

저메탄 조사료 유통센터 등 성과 공유 하반기 ‘비전사업 2.0’ 발표도 예정

함평군이 민선 8기 3년간 성과를 되짚어 보며 남은 1년 동안 서남권 중추도시로서 도약을 추진한다. 13일 함평군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전 엑스포

공원 주재영상관에서 이상의 함평군수의 민선 8기 3주년을 기념하며 정례 회의를 개최했다. 정례 회에는 군청 간부 공무원들을 비롯한 공직자 200여명이 참석해 지난 3년간 민선 8기의 성과와 앞으로의 비전을 담은 영상을 시청하며 미래 발전 방향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진> 민선 8기 함평군은 ‘새로운 도약, 희망찬 함평’이라는 군정 목표 아래 ▲빛그린 국가산단

▲전국 최초 저메탄 조사료 유통센터 구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거뒀다. 특히 2023년 전남도와 공동으로 발표한 1조8천억원 규모 ‘함평 미래 지역발전 비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며 함평의 미래 100년을 이룰 첨단 도시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하반기와 함께 시작되는 민선 8기 4년차에는 비전사업 2.0을 발표할 예정이다. 기존 사업을 더 정교하게 보완한 것은 물론 RE100 국가산단, 미래 융복합 첨단신도시 조성 등 신규사업도 포함된다. /함평=김연수 기자

영암군, 실시간 버스정보시스템 재구축 운영

3억5천만원 투입...타지역 연계까지

영암군은 13일 “군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버스정보시스템(BIS, Bus Information System)을 재구축하고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BIS는 영암군에서 운행 중인 농어촌버스의 ▲실시간 위치 ▲도착 예정시간 ▲운행 노선 정

보를 종합 제공하는 것으로 버스정류장 전광판이나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다. 시스템 재구축은 2014년 도입된 BIS의 정확도를 높이고 장애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로, 사업비 3억5천만원을 투입, 지난해 9월부터 시작해 올해 7월 마무리됐다. 온라인에서 ‘광역버스정보 시스템’에 접속한 다음 ‘전남도’영암군’을 차례로 선택하고, 노선번호 또는 정류장 이름을 검색

하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대중교통정보 통합플랫폼과 연동해 다른 지역 대중교통 정보까지 함께 확인할 수 있다. 군은 이후 네비지도와 카가오맵 등 민간 앱과 연결해 실시간 버스정보 검색을 확장해 버스 이용객들의 편의를 증진할 방침이다. 또한 버스정보단말기를 독천터미널, 세한대학교, 옛 삼호터미널 3곳에 추가하고, 비래마와 과 학림마을에도 버스정보 확인 단말기를 새로 도입해 실시간 버스 운행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영암=나동호 기자

장기소 영광군의원 “난임 지원 확대·공정 인사 필요”

5분 자유발언서 군민 행복 방안 제시

영광군의의회는 13일 “장기소 의원이 제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군민 행복 증진과 공직사회 신뢰 회복을 위한 주요 현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먼저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한 난임부부 지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영광군은 난임 시술비 본인부담금, 전남형 시술비 등 다양한 사업에 약 1억1천2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며, 체외수정 최대 150만원, 인공수정 30만원까지 군비를 추가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지원 규모와 횟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며, 경제적 이유로 출산을 포기하지 않도록 소득 기준 완화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또한 공직사회 인사 운영의 공정성을 강조하며 2025년도 하반기 정기인사에 대한 문제도 제



기했다. 특히 상하수도사업소장을 세종시에 있는 전남도 중앙협력본부에 파견한 사례를 언급하며 “조직 내 직급 체계를 고려하지 않은 인사는 공직사회 사기를 떨어뜨리고 군민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성과 중심의 평가체계 확립과 전문성·연속성을 보장하는 인사 시스템 구축도 함께 당부했다. 또한 장 의원은 현재 공무원 초과근무 급량비 9천원에 불과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외부에서 식사 한 끼 해결하기도 어려운 현실”이라며 중앙정부와 협의하고 타 지자체와 연대해 급량비 단가 현실화 및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군민 삶의 질 향상과 공직사회의 자긍심 회복은 우리의 책무”라며 “신뢰받는 군정 실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영광=김동규 기자

소규모 텃밭부터 노후 하우스·스마트팜 시설까지

강진, 맞춤형 하우스 지원 사업 ‘호응’

강진군이 다양한 하우스 관련 지원 사업들을 추진해 현실적 도움이 필요한 농가들에 맞춤형 보조사업으로 각광받으며 현장 수요에 적극 부응하고 있다. 13일 강진군에 따르면 자체 예산으로 ‘시설원예 스마트팜 지원사업’, ‘소규모 다목적 텃밭 지원사업’, ‘시설하우스 개보수 지원사업’, ‘장기성·일반필름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단동 및 연동형 기본 비닐하우스 지원은 물론이고, 자동화비닐온실, 냉난방시설 및 스마트제어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도 있다. 이 지원사업들은 과채류나 화훼 등 초기자본이 많이 드는 작목 재배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또한 ‘소규모 다목적 텃밭 지원사업’으로 영세농들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99㎡(30평), 166㎡(50평)의 텃밭 규모와 소형하우스를 통해 농가들은 자기 소비용 농산물 생산은 물론 직거래 장터나 로컬푸드 남품 등의 부가 소득도 창출하고 있다. 이 밖에 ‘시설하우스 개보수 지원사업’과 같은 노후된 하우스를 가지고 있는 농가들의 개보수를 지원 해주는 사업과 주기적으로 교체가



필요한 농업용 필름 교체에 위한 ‘장기성 일반 필름 지원사업’과 같이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농가맞춤형 보조사업들도 지원 중이다. 강진읍으로 귀농해 15년 동안 딸기육묘를 재배 중인 김용식씨는 올해 ‘시설원예 스마트팜 지원사업’으로 2억5천만원 사업비의 절반을 지원받아, 자동화비닐온실, 양액재배시설, 다겹보온커튼 등을 설치했다. 김용식씨는 “딸기육묘 재배를 위한 초기 설치비는 영세농들에게는 적지않은 비용이라 부담됐는데, 강진군만의 다양한 비닐하우스 보조사업지원을 알게 돼 필요했던 시설들을 한 번에 설치할 수 있어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강진=정영록 기자

신안군 ‘2025 흑산 섬 영화제’ 공모

내달 3일까지 접수...5-10분 영상

신안군은 13일 “흑산도의 일상과 자연을 담은 영상을 발굴하기 위해 ‘2025 흑산 섬 영화제’ 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참가 자격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개인 또는 팀으로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접수는 오는 8월 3일까지 받으며, 내용은 흑산도를 배경으로 한 단편영화, 다큐멘터리, 브이로그 등 형식에 제

한 없이 영상물이면 모두 가능하다. 이번 공모전은 ‘2025 흑산 섬 영화제’라는 주제로 K-관광섬 자산여보 흑산도 사업으로 진행하며, 섬의 일상을 영상이라는 언어로 기록하고,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 방법은 해상도 1920x1080 크기 규격에 맞춘 5-10분 이내의 영상을 유튜브 전체 공개 게시 후, 구글폼을 통해 출품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영상 제목은 ‘작품명 2025 흑산 섬 영상 공모전’으로 작성하고 필수 해시태그 #HITF #흑산도 #흑산섬영화제를 기입해야 한다. /신안=양홍기 기자